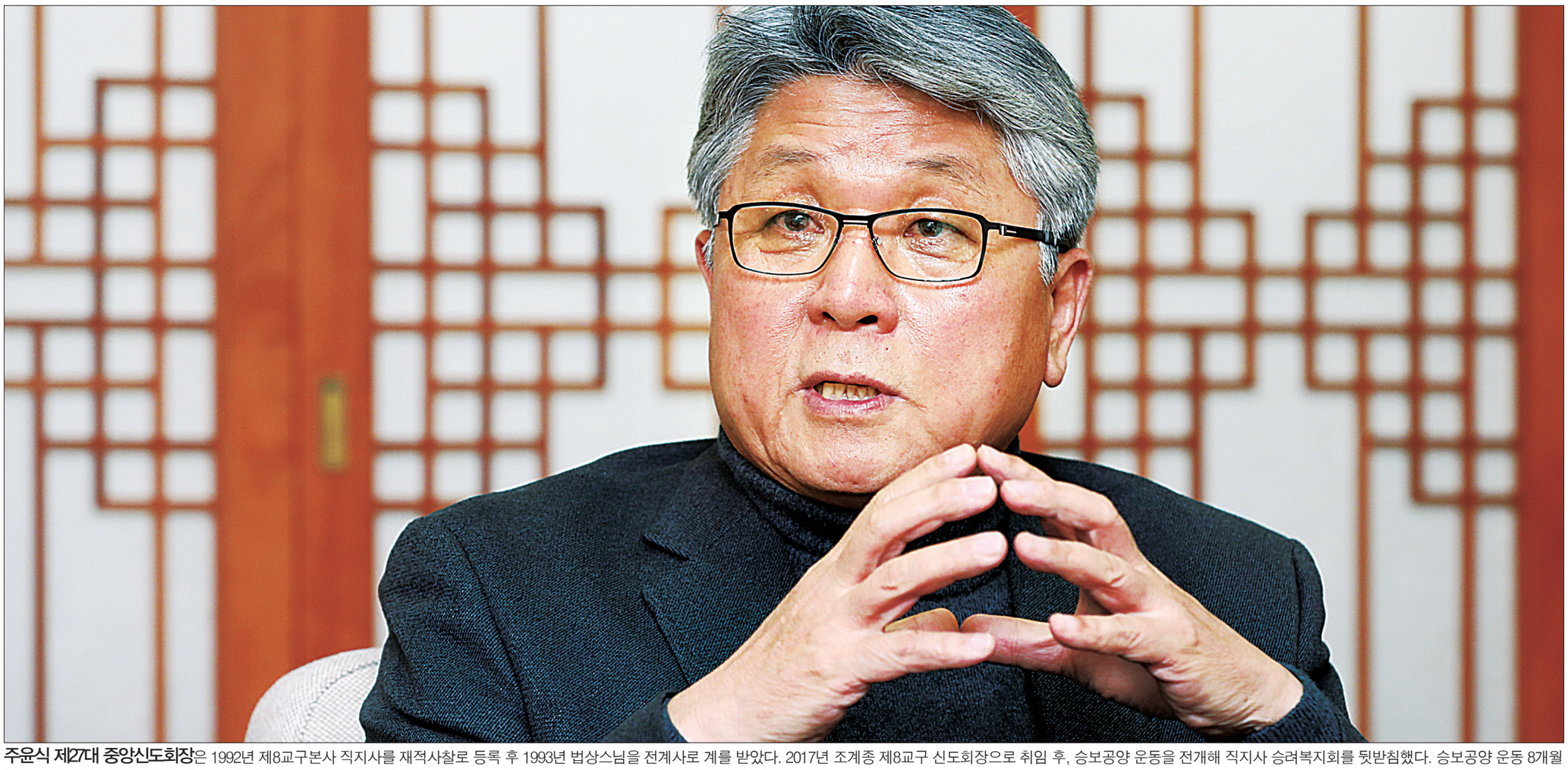


주윤식 제27대 중앙신도회장은 1992년 제8교구본사 직지사를 재적사찰로 등록 후 1993년 법상스님을 전계사로 계를 받았다. 2017년 조계종 제8교구 신도회장으로 취임 후, 승보공양 운동을 전개해 직지사 승려복지회를 뒷받침했다. 승보공양 운동 8개월 만에 후원자 1000명을 모집했고 이 공로로 2019년 포교대상 공로상도 수상했다. 대구 중견기업 상하수처리 교반기 제작 업체인 주식회사 우진 대표이기도 하다. 사진=박재완 기자

"신도 정보 디지털화, 최우선 과제"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지난해 10월 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는 조촐한 취임식이 열렸다. 바로 주윤식 제27대 조계종 중앙신도회장(법명 덕산)의 취임식이었다. 100여 명의 대중만이 모인 자리였지만 이날 취임식에서 주 신도회장은 불교 중흥을 위한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인 위기가 닥친 2021년,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취임 후 90여 일이 지난 구랍 23일, 새해를 맞이해 주 신도회장에게 신년 계획과 불자들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방안을 들어보았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주윤식
제27대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Q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2020년이 저물고 2021년이 밝았습니다. 취임하시자 마자 코로나19 대응부터 연말로 잡힌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등 다양한 업무에 놀라시기도 하셨을텐데요. 숨가쁜 한 해였다고 보입니다. 제27대 중앙신도회장으로 지낸 2020년에 대한 소회가 있다면요?

코로나 때문에 전국민들이 모두가 놀랐던 한해였습니다. 저는 대구사람이기에 코로나19가 더욱 체감이 됐습니다. 국가와 세계에 혼란이 오고 어려웠던 한해였습니다.

그런 과정에 신도회장을 맡게됐습니다. 그동안 교구신도회장을 맡다가 중앙신도회장을 맡으니 조직 크기나 챙겨야 할 일들이 많아 한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만행결사에도 참여하고 2020년 한해는 정신 없이 지낸 것 같습니다.

교구신도회장을 하면서 3년 반 가량 중앙신도회 부회장으로 참여했는데, 수동적인 참여에서 회장을 맡고 보니 이 자리가 그냥 하는 자리는 아니라는 점을 통감합니다. 부족함을 느끼고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 뿐입니다.

Q 중앙신도회 65년 역사에서 교구신도회장 출신으로 처음 중앙신도회장에 취임하셨습니다. 그런 연유로 지난 집행부에서 구성된 전국 교구신도회의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됩니다. 교구신도회 조직화와 활성화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세요.

25 · 26대 회장을 지내신 이기흥 회장님이 많은 일을 해놓으셨습니다. 그중 신도들의 조직화와 역량 고취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기흥 前 회장님이 자갈밭에서 논밭을 일궈놓으셨다면 그 터에 뿌려진 씨가 잘 크도록 하는 것이 남았다고 봅니다. 교구신도회장을 할 때와 많은 차이를 느끼는데 근본적으로 중앙신도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교구신도회가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구신도회가 잘되려면 말사신도회도 잘 되어야죠. 열악한 교구신도회의 부분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신도 네트워킹 결집의 방편
상부 상조하는 공동체 구성
행복바라미 · 승보공양 집중

교구신도회들의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교구신도회장들과 소통을 많이 할 것입니다. 서로 지금까지 만나서 생기는 소통 뿐만 아니라 일을 같이 하거나, 비대면으로 만나는 것도 소통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신도회를 맡으면서 2가지 공약이 있습니다. 선대들이 해온 사업, 특히 행복바라미 사업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자리를 잡는 것과 재가불자들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것입니다.

종단이나 불교계가 원하면서 못했던 것이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신도회가 약했던 것은 재가불자들의 힘이 모이지 않았던 것에 기인합니다. '함께 재가불자의 본분을 다하자'는 명분 하에 쉽지 않지만 불자들의 역량을 모으는 데 나서고자 합니다.

역량을 모으는 데는 재가불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종교라는 동질성 하에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상부상조하는 틀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불자들이 하는 일을 행정구역별로 정리하여 정보를 교류하는 앱을 만들고자 합니다.

정보화 시대에 맞게 불자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일에 나서겠습니다. 가령 사과를 사려고 한다면 불자기업을 연결해주는 것입니다. 서로 상부상조하는 틀을 만들어 주면 불자로서의 큰 틀이 되고 본연의 역할인 승보공양, 자비나눔 등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0만 명의 불자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체제가 잡힌다면 불교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디지털화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신도회 내부적으로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각종 의사결정에서 원격 결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시험기간을 거쳤고,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입니다.

Q 전 집행부는 행복바라미 캠페인을 통해 불자들의 신심고취와 대사회적인 기여에 나섰습니다. 신임 집행부 또한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행복바라미의 적극적인 전개를 위해 앞으로 남은 과제와 계획은 무엇이 있을까요?

행복바라미 행사를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방식으로 하게 됐습니다. 당초 4월에 광화문 광장에서 10만여 명이 운집하는 행사로 준비했습니다. 다소 부족함이 있었지만 긍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108개 사찰에서 참여했다는 점에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찰에서 시간과 장소를 떠나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서 대한민국이 큰 법당이 되는 것입니다.

C5면에 계속

謹賀新年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는
전국 모든 불자들의 염원을 담아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 신도대중일동

